



# 특명! KIST의 비밀을 밝혀라

21 영상미디어연구센터 上

글 김경우 기자·그림 김준



김준 일러스트레이터 겸 만화가입니다. '미디어 디움' '스포츠투서울' 'Paper' '영점프' 등의 다양한 매체에 작품을 연재하였습니다. 함께 취재를 하며 '키스트'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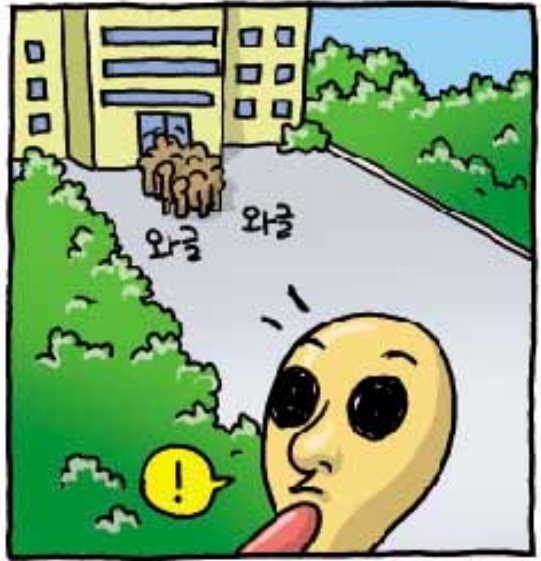














## 영상미디어연구센터

1997년 첫 연구를 시작한 영상미디어연구센터는 가상현실을 실제의 상황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실감 미디어'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영상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미디어 기술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차원적인 평면에서 보여지고,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전달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실감 미디어'가 개발되면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갖가지 감각을 느끼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